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 더 받는다...3차 지원금 설 전 지급

정부,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 설 민생안정대책 확정 3만원 연탄쿠폰·20만원 방한용품 취약계층 특별지원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적용 이용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여 기부 열기에 불을 지핀다.

다가오는 설 연휴 전까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지급을 약속한 3차 재난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다.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도록 한과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설 명절을 계기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5%, 3000만원 초

과분은 25% 세액공제한다.

아직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인상 방안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정 비율씩 세액공제율을 올려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이상 30%인데 양 구간 적절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개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이 약 70%를 차지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양극화 심화를 타개하는 취지에서 특정 그룹에 솔리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 설명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인상 방향을 오는 7월 세법개정안 확정 때 발표할 계획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에 큰 타격이 생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250만명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이는 전체 대상의 90% 수준으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일반업종에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집합제한업종(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유형시설·노래방·헬스장 등)에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중 새롭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5만명에게는 2월 중 100만원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가 아닌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44만명과 방과후 학교강사 6만명 중 9만명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도 다음 달 지급을 시작한다.

개인택시와 달리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설 연휴 전에 나눠줄 예정이다.

복지시설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 9만명에게 지급하는 설 명절 특별위로금도 기존 4만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1만원 인상을 5만원을 지급한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햇살론 공급규모를 1000억원 추가해 233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저금리 융자와 보증수수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덜어준다.

올 겨울 잦은 눈과 한파로 취약계층이 고동받지 않도록 '생활밀착형 한과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장애인(518개), 노인(94개), 노숙인(41개) 국고지원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보급하고, 워터, 자립지원관 등에 임시한 가출정소년 1800명에게는 패딩 등 20만원 상당의 방한용품도 지원한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한과 워터를 1만 4000곳을 운영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년의 30% 수준에서 가동하고, 각 공공기관은 코로나19와 한파로 어려운 계층에게 임직원 성금 등을 활용해 연탄과 난방비 등을 후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설 명절 소외계층 23만명에게 133억원을 지원하고,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QR코드, 간편결제 등 비대면 방식으로

모금활동을 펼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2만7000개 저소득가구에 설 연휴 전까지 422억원 규모 긴급복지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장학사업, 취약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재원 마련,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비 지원 등 복권기금 사업도 전체 기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397억원을 1~2월 중 집중 집행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50% 요금가산 없이 평일요금을 적용하고, 노숙인,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급식, 식품품, 도시락 제공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서선욱기자

전남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양성		
프로젝트	블루잡(Blue Job) 청년 뉴딜로	DNA+US 기반기업 청년일자리
사업기간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2021년 3월부터 최대 2년까지
모집대상	청년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전남 거주 또는 거주 예정자)
	기업	4차산업 관련 8대선도 기술 분야 관련 기업 디지털 뉴딜·지역 뉴딜 및 블루 이코노미(6대 분야) 관련 프로젝트 수행(예정) 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공사, 공기업
모집기간	기업	AR/VR,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공공데이터),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드론, 네트워크(5G), 스마트공장 등의 관련 기업
	청년	블루에너지, 블루투어, 블루바이오, 블루트랜스포트, 블루시티, 블루농수산
지원사항	기업	2021. 1. 13.(수) ~ 1. 25.(월)
	청년	2021. 2. 4.(목) ~ 2. 21.(일) 2021. 2. 4.(목) ~ 2. 14.(일)
- 월 230만원 급여지원(기본급 200만원, 활동수당 30만원) - 사업장 4대 보험금 월 최대 25만원 * 기업 자부담: 기본급의 10%인 20만원/월, 퇴직충당금, 시간외 근무수당, 기타 복리후생 등 - 실무 역량강화 직무관련 교육 지원 - 최근 기술·산업 동향 파악을 위한 컨퍼런스·전시회 참관 견학 등 지원		

전남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양성 참여기업·청년근로자 모집

전라남도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한다.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준근 원장)은 전남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블루잡(Blue job) 청년 뉴딜로 프로젝트'에 290명, 'DNA+US 기반기업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에 100명 등 모두 390명의 청년일 자리를 제공한다 밝혔다.

'블루잡(Blue job) 청년 뉴딜로 프로젝트'(이하 블루잡 프로젝트)는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분야(블루에너지, 블루투어, 블루바이오, 블루트랜스포트, 블루시티, 블루농수산)에서, 'DNA(Data, Network, AI)+US(Untact·Digital SOC) 기반기업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이하 DNA+US 프로젝트)는 4차 산업 관련 8대 선도 기술 분야(AR/VR,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드론, 네트워크(5G), 스마트공장 등)에서 청년 특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 청년근로자 참여 방법은?

블루잡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근로자에게는 오는 3월부터 최대 10개월 간, DNA+US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근로자에게는 오는 3월부터 최대 2년간 매월 230만원(기본급 200만원+활동수당 30만원)이 지원된다.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참여 신청서 등을 작성해 오는 2월 4일부터 2월 21일까지 '전남 청년 내일로' 홈페이지(www.ictwork.net)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만 39세 이하로 전남에 거주(예정)하는 청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채용 공고는 2월 4일부터 '전남 청년 내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각 채용기업의 우대 사항 및 기타 복리후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업 참여 방법은?

이 사업에 참여해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기본급의 10%(20만원/월), 퇴직 총당금, 시간 외 근무수당, 기타 복리후생 등을 부담하게 된다.

블루잡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디지털 뉴딜·지역 뉴딜 및 블루 이코노미(6대 분야) 관련 프로젝트 수행(예정) 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공사, 공기업 등이다.

DNA+US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4차 산업 관련 8대 선도 기술 분야 관련 기업으로, 청년근로자들에게 근무환경을 제공한 후, 2년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기업이다.

참여 기업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전남 청년 내일로' 홈페이지(www.ictwork.net)를 통해 신청 및 모집공고를 안내하고 있다.

참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직무에 맞는 인재를 발굴해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기업의 성장동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준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 사업은 전남의 청년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경험하고, 디지털 경제전환 가속도에 발맞춰 핵심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이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작년 신차 판매 호조...등록차량 2437만 대, 전년비 2.9% ↑

새 차 판매 200만 대...신차 출시·코로나19 등 영향

지난해 국내에서 신차가 200만 대 가깝게 판매되는 등 신차 판매 호조로, 차량등록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6만5979대(이륜자동차 229만 대 제외)를 기록해, 전년(2368만대) 대비 2.9%(68만9000대) 증가했다.

이는 인구 2.1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1.1명), 일본(1.7명), 독일(1.6명)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신규 등록 자동차는 191만5743대로, 역대 최고다. 전년(180만4456대) 대비 6.2% 증가해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규 등록은 지난 2010년 150만대를 돌파한 이래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신규등록이 증가한 배경은 신차출시 효과 및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보다 자가 운전을 선호하는 경향도 반영됐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친환경차 구입도 덩달아 늘고 있다.

지난해 신규등록 차량 중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은 11.8%로, 전년(7.9%) 수준을 넘어서며 처음 10%대로 도약했다. 다만 경유차는 30.8%로 전년(36.4%)보다 확연한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휘발유 차량의 신규 등록 비중도 전년 47.6%에서 50.0%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등록대수도 사상 처음

80만대를 돌파했다. 친환경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82만329대로 집계돼 전체의 3.4% 비중을 차지한다.

수입차 점유율은 11.0%(268만 대)로, 전년 10.2%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차 거래건수는 387만4000대로 조사돼, 전년 361만4000대 대비 7.2% 늘었다. 반면 중고차 수출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27만 8000건으로 전년(35만1000건) 대비 20.8% 줄었다.

이중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증대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통계관리 및 맞춤형 통계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I에 22% 뺐 계란값...6월까지 5만t 관세 면제키로

정부,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 의결...특란 10개당 소비자가 2177원

닭 살처분으로 공급 11% 줄어...설 성수기 전 가격 인상 대비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가격이 오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의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177원으로 평년 대비 22.4% 올랐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닭이 살처분되면서 계란 공급이 평년과 비교해 11%가량 감소한 탓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용과 제과·제빵용 계란 수요도 늘었다.

다른 축산물 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공급 여력은 충분하지만 시장 심리가 불안과 가정 수요 증가 등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소비자가격은 각각 kg당 5691원, 1만5049원으로 평년 대비 8.5%

15.1% 뛰었다.

같은 기간 냉장 삼겹살의 소비자가격은 100g 당 2100원으로 18.0% 올랐고, 소고기 양지는 100g당 6023원으로 8.0% 상승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급격한 축산물 가격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계란의 경우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총 5만t 한도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5일부터는 농축산물 할인 쿠폰 사업을 통해 대형마트에서 계란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다.

또한 제과·제빵업체에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부정 유통 행위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개별 업체가 보유 중인 냉동 재고 출하를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 물량을 점검하기로 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 안정 대책 기간 중 평시와 비교해 각각 1.4배, 1.24배 수준의 물량이 출하될 예정이다. 해당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일일 점검이 진행된다.

기동취재본부